

# 3 갈뱅의 삼위일체(론)적 성령론

최윤배 교수 박계순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sup>1)</sup>



## 1. 들어가는 말

“일반사전이나 신학사전 속에 아직도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학적 배경과 관련해서 삼위일체론은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 출발점이다.”<sup>2)</sup> “우리가 사용하는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이란 용어는 성령론이 일차적으로 삼위일체론의 틀 속에서 파악됨을 의미한다. 성령의 위격과 사역은 삼위일체적으로 규정된다.”<sup>3)</sup> 이와 같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1. 참고, 박계순, “갈뱅의 성령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5. 8.), 6-19.
2. J. van Genderen en W. 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1992, 161, 145 : 최윤배, “개혁파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1491-1551)의 삼위일체론적 성령론,” 「신학지평」 제13집(안양대학교신학연구소, 2000. 가을·겨울호), 207-236, 재인용.
3. 최윤배, “개혁파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1491-1551)의 삼위일체론적·기독교론

함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에서 완전히 무시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이 교회사와 신학에서 무시되지 않을 때조차도 두 가지 편파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성의 일체성만을 강조하여 단일신론(單一神論)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와 삼위일체성의 삼위성만을 강조하여 삼신론(三神論)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표현은 익숙하지만 "성령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는 "성자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표현은 낯설게 다가온다. 이같이 우리는 교회의 생활 속에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부 하나님만큼 익숙한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삼위의 사역은 창조는 성부에게로, 구원은 성자에게로, 성화는 성령에게로 돌린다."<sup>4)</sup> 이렇게 삼위의 사역에 대한 설명에 치중한 나머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나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가 어떻게 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야말로 교리공부 때에나 언급되는 사변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 같은 현실에서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이 칼뱅에게서는 어떤 관련 하에서 통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신자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고는 칼뱅의 성령론이 어떻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 자신으로서 성령, 둘째 삼위일체의

제3의 위격으로서 성령, 셋째 힘과 능력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 2. 하나님 자신으로서 성령

칼뱅에게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다. 칼뱅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자존성(自存性; aseity; aseitas), 영원성, 완전성 등을 열거한다.<sup>5)</sup> 칼뱅은 성령의 자존성을 특별히 젤틸(Valentine Gentile)과의 논쟁 가운데서 주장한다. 논쟁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삼위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젤틸은 세르베투스(Servetus Michael)가 "하나님의 본배의 양식에 따라 성자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일부분이 있다."<sup>6)</sup>고 주장함으로써,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파괴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세르베투스와 달리 삼위가 있다는 것은 고백하였다. 그러나 젤틸은 성부만이 진실로 유일한 하나님 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성자와 성령에게 신격을 주입하셨고 했다. 그는 이 같은 관점에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젤틸에겐 성부만이 유일한 '본질의 수여자'(essentiator)이다. 따라서 세르베투스와 마찬가지로 젤틸의 결론은 성부만이 하나님이다. 젤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에서 논의를 출발하였다. 여기에 반대하여 칼뱅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말씀이 만세 전에 벌써 성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이다. 성부에게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성부가 신격의 원천이시며 근원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탁월한 방법으로 성부에게 하나

적 성령론," 「생명의 영성」, 조직신학논총 11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73-74.

4. 이수영, "칼뱅의 성령론," 「신학정론」 1994, 5(서울: 합신대출판부, 1994), 159.

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1559)」(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제1권의 10장의 2항. 이후부터 「기독교 강요」를 *Inst.*로 I권 1장 1항을 I. i. 1.로 표기하기로 한다.

6. *Inst.*, I, xiii, 22.

님이라는 명칭이 적용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본질의 유일한 단일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부와 동등한 말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신격에 대하여 언급될 때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도 속한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젠틸과 세르베투스의 주장대로 성부와 하나님이 동의어(同義語)라고 하면, 이들의 주장대로 성부는 신격의 원작자가 될 것이며,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과 두 피조물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sup>8)</sup>

칼뱅의 반론의 핵심은 삼위를 본질에서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다. 칼뱅이 삼위를 구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세 위격들의 구별이지 세 위격들의 분리나 한 본질의 구별이나 분리가 아니다. 칼뱅은 삼위의 본질의 일체성을 통해 삼위의 자존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자, 성령의 본질이 비발생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부는 순서상 처음이시며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지혜를 낳으셨기 때문에 모든 신성의 기초가 되시며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우리는 삼위를 본질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삼위를 구별하되 그 각자가 본질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한다. 만일 위격이 본질에서 분리되었다고 하면, 유일신이 그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제신(諸神)의 삼위일체가 될 것이다. …… 위격들은 본질 없이 혹은 본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질이 삼위일체의 부분 혹은 한 구성원으로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성부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한 성부가 될 수 없으며 성자 또한 그가 하나님이 아닌 한 성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격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존하신다.<sup>9)</sup>

7. *Inst.*, I, xiii, 23.

8. *Inst.*, I, xiii, 25.

9. *Inst.*, I, xiii, 25.

다시 말해 각 위격들이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은 한 본질에서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본질 안에 있으면서 질서(ordō)의 관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전(全) 본질이 성부에게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본질은 분할할 수 있는 것이 되든가 아니면 성자에게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되든가 할 것이다.<sup>10)</sup> 이같이 칼뱅은 삼위를 본질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본질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면서 삼위를 구별함으로써 삼위일체(四位一體)론의 오해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가 본질, 성자, 성령의 셋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세 위격들 간의 구별이지 분할이 아니다. 칼뱅은 순서와 지위에 있어서 신성의 근원이 성부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마치 성부가 성자의 신격의 원작자이거나 한 것처럼 본질이 성부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sup>11)</sup>

반(反)삼위일체론에 속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칼뱅은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즉, 하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분할하는 것 또다른 하나는 각 위격들의 구별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자는 종속론적 반삼위일체론이고, 후자는 양태론적 반삼위일체론이다.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정의를 통해 모든 이단 사설을 방어한다. "한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시며 분할되지 않는다. 이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같이 속한다. 한편 성부는 어떤 특성에 의해 성자와 구별되시며 성자도 성령과 구별되신다."<sup>12)</sup> 이 같이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다. 따라서 삼위는 하나님의 본질인 자존성과 신적인 속성들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자존성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증명된다. 칼뱅

10. *Inst.*, I, xiii, 18.

11. *Inst.*, I, xiii, 24.

12. *Inst.*, I, xiii, 22.

에게서 성령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갈뱅에 의하면, 성령의 신성은 그의 사역(works)에서도 입증된다. 갈뱅은 성령을 창조와 재창조(새 창조, 구속)의 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바실리우스(Basilius)와 암브로스(Ambrose)에 의지하여 성령의 신성을 주장한다.

이 창조사에서(바실리우스와 암브로스의 창조론)<sup>13)</sup>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이 권능으로 모든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산출하셨다는 것…… 개개의 종류가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어떤 피조물들을 배양하시되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 활력을 넣어 주시고 또 어떤 피조물에게는 번식력을 주셔서 그 종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sup>14)</sup>

갈뱅의 경우,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탱하시어 무(無)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신다. “우주의 창조가 성자의 사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다.”<sup>15)</sup> 갈뱅은 성경의 창조기사를 성령의 신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삼는다. “성경에서 모세는 혼돈된 덩어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었다고 말한다.”<sup>16)</sup>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신(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 1:2 하)고 한 모세의 증거는 실로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보존될 뿐만 아니

라 또한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저 혼돈된 덩어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sup>17)</sup>

이같이 “성령은 창조기사에서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된다. 영원하신 성령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어 아주 조심스럽게 천지의 혼돈한 물질들을 유지하시며 또한 여기에 미와 질서를 가하셨다.”<sup>18)</sup> 하나님의 영은 혼돈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날마다 섭리의 능력으로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

갈뱅은 「창세기 주석」(1554)에서도 성령을 창조와 재창조의 영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돈된 덩어리였다. 그런데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여 활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다. 갈뱅은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혼돈이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성령의 은밀하신 권능에 의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sup>19)</sup>

성령께서는 온 우주에 편재하시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것들을 성장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소생시키신다. ……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들에게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심에 있어서, 확실히 그는 하나님이신 것이다.<sup>20)</sup>

이와 같은 성령의 창조 권능은 성령이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sup>21)</sup>는 것을 말해 준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루이스 베르코프(Louis Berkhof)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은 피조

13. 바질과 암브로스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ex nihilo) 천지를 창조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고대 에피큐로스 학파는 이 견해를 부인하였다. 어거스틴(Augustine) 또한 무에서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주장했다. *Inst.*, I. xiv. 20, 각주 29.

14. *Inst.*, I. xiv. 20.

15. *Inst.*, I. xiii. 15.

16. *Inst.*, I. xiii. 22.

17. *Inst.*, I. xiii. 14.

18. *Inst.*, I. xiii. 22.

19. 「창세기 주석」, 창 1:2.

20. *Inst.*, I. xiii. 14.

21. *Inst.*, I. xiii. 14.

물들의 안팎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심으로써 사물들을 완성에 이르게 한다. 성령의 사역은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접촉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이다. 그리고 생명은 성령에 의하여 매개된다.”<sup>22)</sup> 하나님은 창조행위 자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피조세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피조세계를 존속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접촉을 유지하고 계신다.

갈뱅에 의하면, 성령의 신성은 구약의 예언자들 속에서도 드러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선지자들을 파송하신 사실 자체에서 성령의 신적 권위는 밝히 드러난다.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함께 보내셨다고 말한다(사 48 : 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예언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예언자들 속에서 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신다.<sup>23)</sup> 따라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마 12 : 32 ; 막 3 : 29 ; 눅 12 : 10)고 말함으로써 성령의 신적 위엄을 공적으로 선언한다.<sup>24)</sup> 성령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전 피조세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서 또한 신약의 사도들 속에서 “그 최고의 권능을 행사하신다.”<sup>25)</sup>

갈뱅에게서 성령은 중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창시자이다. 갈뱅은 성령에게도 성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신성에 속하는 중생하게 하시는 기능이 주어졌다고 말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중생하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은 빌려 온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창시자이시며, 중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창시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그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청의는 성령의 사역이다.<sup>26)</sup> …… 성령의 비밀하시고 놀라운 능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며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동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신다.<sup>27)</sup>

성령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에 한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그 용서를 선용할 수 있게 하신다.<sup>28)</sup>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드디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sup>29)</sup> “성령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하면,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또 의지(意志)한다는 것은 결코 그에게 있을 수 없을 것이다.”<sup>30)</sup> 성령은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다.

갈뱅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전지(全知)성을 가지신다. 성경은 ‘피조물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못하지만’ 이라고 말하면서(롬 11 : 34) 또다른 곳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 : 10)고 말한다.<sup>31)</sup>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르실 수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意志)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

2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상)」(고양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296.

23. *Inst.*, I. xiii, 14.

24. *Inst.*, I. xiii, 15.

25. *Inst.*, I. xiii, 14.

26. *Inst.*, I. xiii, 14.

27. 「고린도전서 주석」, 고전 11 : 23-26.

28. *Inst.*, III. ii. 11.

29. *Inst.*, III. ii. 33.

30. *Inst.*, I. xiii, 14.

31. *Inst.*, I. xiii, 14.

님의 행동력이다. “성부의 영원성은 또한 성자와 성령의 영원성이기도 하다.”<sup>32)</sup> 칼뱅이 성령이 하나님임을 주장하는 또다른 증거는 성경이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상)라는 구절이 위격들을 구별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표현된 삼위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의 권능과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성부, 성자, 성령에게 공통되게 속한다.<sup>33)</sup> 또한 칼뱅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성령이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사도는 가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17; 고후 6:16)이라 불렀고 또 어떤 때는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성령의 전’(고전 6:19)이라고 불렀다. 성령을 속였다고 하여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4 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사야가 만군의 주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한 구절 중에서 바울은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다(사 6:9; 행 28:25-26). 실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이 만군의 주의 말씀이라고 변함없이 말하였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를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였다(벧후 1:21).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완고함을 인하여 노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다(사 63:10).<sup>34)</sup>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기를 회피하지 않는다.”<sup>35)</sup> 이상과 같이 칼뱅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

32. *Inst.*, I, xiii, 18.

33. *Inst.*, I, xiii, 24.

34. *Inst.*, I, xiii, 15.

35. *Inst.*, I, xiii, 15.

드러난 성령의 신적 본질을 성령에게 돌림으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신성을 강조한다. 칼뱅에게서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 3. 삼위일체의 제3의 위격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이라는 용어는 ‘성자’라는 용어만큼 위격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위격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이후이다. 성령의 위격성은 초대교회에서 단일신론자들과 성령휘방당(Pneumatomachians)에 의하여 부인되었으며,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지니주의자들에 의해 부인되었다.<sup>36)</sup>

성령의 완전한 신격성에 대해 개척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고대교회 교부인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5-373)이다.<sup>37)</sup> 그는 아리우스파에 대항하여 당시의 일반적 관계와는 달리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sup>38)</sup> 아타나시우스가 성령의 동일 본질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면, 카파도키아 교부들(Basil of Ancyra, Gregory of Nazianzus, Gregory of Nissa)은 그 과제를 조심스럽고 용의주도하게 완성하였다.<sup>39)</sup>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공의회(AD 381) 이전까지는 성령의 신

36. L.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상)」, 294. 이단으로 정죄된 성령파들은 성령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능력 또는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37.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김광식 역, 「고대기독교 교리사」(서울: 도서출판한글, 2004<sup>2</sup>), 303. 아타나시우스(295-373)는 세라피온에게 보내는 네 번의 편지 속에서 그의 성령론과 삼위일체 신앙을 발표했다. 그는 성령이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신적이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공동실체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38. Jaroslav Pelican, 박종숙 역, 「고대교회 교리사」(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283.

39. J. N. D. Kelly, 「고대기독교 교리사」, 307.

성, 즉 성령의 위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현대에 들어 헨드리쿠스 베르코프(Hendrikus Berkhof)는 성령의 독립적 위격을 제거하고 이위일체론을 주장하였다. 베르코프는 성령이란 낱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명사에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된다는 점과 신약성경 속에서 성령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승귀(고양)된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령론에서 더 이상 '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sup>40)</sup>

베르코프에 의하면 “성령은 창조 중에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위격이고 재창조 중에는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곧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위격이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위격이 없이는 이미 위격이 아니다.”<sup>41)</sup>라고 한다. 베르코프에 의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아들을 향하여 활동하고 아들로부터 나오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활동이다.<sup>42)</sup> 베르코프가 성령의 위격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성령 자신의 독립적인 위격이 아니다. 베르코프에 의하면 “성령이 위격으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위격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위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위격이다.”<sup>43)</sup> 그는 삼신론의 위험을 피하려다 성령의 독립적 위격을 포기하는 이위일체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칼뱅에게서 '위격' 또는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한 '실체'(subsiste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실체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하여 다른 위격들과 구별된

다.”<sup>44)</sup> 그렇다면 칼뱅이 말하는 다른 위격들과 공유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각각의 위격들의 자신만이 가지는 고유성(固有性; proprietas)은 무엇이며, 성령이 제1위인 성부와 제2위인 성자와 다르게 제3위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칼뱅은 삼위의 각각의 고유성을 삼위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삼위의 사역(works)을 통해 증명한다.

“성령이 말하는 구별은 다음과 같다.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며,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둘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sup>45)</sup>

다시 말해 “성부의 고유성은 근원, 성자의 고유성은 말씀이라면, 성령의 고유성은 힘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성령이 활동할 때 동반되는 것이 힘과 능력이다.”<sup>46)</sup> 칼뱅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는 하나님을, 다음으로는 그로부터 나온 지혜를, 그 다음으로는 그 계획의 작정을 수행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각 위격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이해를 위한 논리적 순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sup>47)</sup> 여기서 그가 말하는 순서는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서이다. 이와 같이 칼뱅은 각각의 위격들만이 가지는 사역을 통하여 삼위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해의 논리적 순서에 의해 성령이 제3위가 된다고 말한다. 일의 작정과 결과 없이 그것을 효과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아무것도 실제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성부로부터 말미암고 성자를 통하여 가능해진 모

40. Hendrikus Berkh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황승룡 역, 「성령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86.

41. 위의 책, 188.

42. 위의 책, 186-87.

43. 위의 책, 188.

44. *Inst.*, I, xiii. 6.

45. *Inst.*, I, xiii. 18.

46.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3), 285.

47. *Inst.*, I, xiii. 18.

든 것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sup>48)</sup>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이러한 결정적 중요성에 대한 갈뱅의 사고는 그가 신지식론이나 신앙론이나 교회론이나 성례론 등을 다룰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강조됨을 본다.”<sup>49)</sup>

갈뱅은 위에서 말한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발생되며 동시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생된다.”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한다.<sup>50)</sup> 갈뱅 이전에 이러한 순서에 주목한 사람은 카파도키아 교부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이다. 그는 성령이 늦게야 하나님으로 인정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독창적인 발전된 교리를 만들어 내었는데, 성부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자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의 신성은 성령의 신성이 승인되기 전에 확정되어야 했다.<sup>51)</sup> 갈뱅도 이 순서를 따른다. 그는 먼저 「기독교 강요」 1권 13장 7~13항에서 성자의 신성과 신격을 다루고 난 후에야 14~15항에서 성령의 신성과 신격을 다룬다. 갈뱅은 교부들에게서와 같이 이러한 순서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이다.

갈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성령이 삼위일체 내에서 제3위의 위격으로서 하나님이사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더욱더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고 또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본질이며 함께 영원하며, 전능하시 만물의 창조자란 것을 믿는다. ……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뢰를 이 성령께

48. 이수영, “갈뱅의 성령론,” 「신학정론」, 156.

49. 위의 책, 157.

50. Inst., I. xiii. 18.

51. J. N. D. Kelly, 「고대기독교 교리사」, 310.

도 돌려야겠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이다.”<sup>52)</sup>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갈뱅은 삼위일체론을 논하면서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를 관련시켜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1539년 카롤리(Caroli)에 의해 제기된 논쟁<sup>53)</sup>은 갈뱅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 근본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었다. 방델(F. Wendel)에 의하면, 갈뱅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와 거룩한 삼위의 구별성을 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였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성령의 신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54)</sup> 위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성령은 삼위일체 안에서 다른 위격들과 관계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신다. 갈뱅은 당시의 반삼위일체론자들의 여러 주장들과 고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언급하면서 양태론적 반삼위일체론을 주장한 사람들을 의식하여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성’을, 종속론적 반삼위일체론을 주장한 사람들을 의식하여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성’을 주장하였다.<sup>55)</sup>

52. Inst., (1536) 138.

53. 카롤리(Caroli)는 갈뱅을 아리우스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54. F. Wendel, Calvin,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196.

55. 갈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도 종속론적 반삼위일체론의 대표자인 아리우스(Arius: 256년경-337)와 양태론적 반삼위일체론의 대표자인 사벨리우스(Sabellius)를 비판하고 있다.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의 유사본질(homoiousios)을 주장하고 성자의 피조성을 주장함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50년경이 전성기였던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은 신격의 구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며, 이러한 종류의 속성은 아주 많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삼위의 구별은 그에게 삼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갈뱅에게서 삼위일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세 위격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자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신성을 공유하지만, 상호관계 속에서는 질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 위격들은 각각의 위격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위격들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진다.<sup>56)</sup>

#### 4. 힘 또는 능력으로서 성령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뱅은 “삼위일체론 속에서 제3위의 위격으로서 성령에게 돌려지는 고유성을 능력이나 힘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명칭과 결부시켜서 성령을 힘과 능력으로 묘사한다.”<sup>57)</sup> 성경에는 성령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이 명칭들은 성령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 갈뱅은 성령의 명칭과 활동을 결부시켜서 성령을 힘·능력이라 부른다.

갈뱅에 의하면 “성령은 깨끗이 씻으며 정하게 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불리워진다.”<sup>58)</sup> 또 “‘물’이라는 말은 때때로 그 순수함 때문에 성령에게 적용된다.”<sup>59)</sup> 우리는 칭의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계속 더러운 죄 가운데로 유혹을 받는다.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내듯 ‘물’로 상징되는 성령의 씻으시는 능력은 끊임없이 죄로 더럽혀지는 우리를 씻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

56. *Inst.*, I. xiii. 18.

57.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85.

58. *Inst.*, III. i. 3.

59. 「요한복음 주석」, 요 7 : 39.

어 내는 일을 하신다.”<sup>60)</sup> 그리하여 우리는 기록해져 가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서 성령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숨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생기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다.”<sup>61)</sup>

갈뱅에 의하면 ‘불’이라는 용어는 성령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금이 불로 정련되듯이 이 ‘불’만이 우리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sup>62)</sup> “성령께서는 꾸준히 우리의 사악한 욕욕을 태워 버리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렬한 헌신의 불길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성령을 ‘불’이라고(눅 3 : 16)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sup>63)</sup>

성령은 또한 ‘바람’이라고도 불린다(요 3 : 8). 갈뱅에 의하면, 이것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효능”<sup>64)</sup>을 비유한 것이다. 갈뱅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한다.”고 한 어거스틴과 이것을 비유로 받아들여 “그 능력은 느낄 수 있으나 바람의 근원과 원인은 숨겨 있다.”고 말한 크리소스톰과 씨릴(Cyril)의 의견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갈뱅이 말하는 좀더 명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육신은 공기를 호흡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바람이 불 때 공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일반적인 질서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이하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과 작용은 공기의 움직임이 이 지상의 외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큼 중생한 사람의 생활에 나타나 보이게 마련

60. 위의 책.

61. 위의 책.

62. 「공관복음 주석」, 마 3 : 11.

63. *Inst.*, III. i. 3.

64. 「요한복음 주석」, 요 3 : 8.

이지만,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생명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은 숨겨져 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주께서는 아주 뛰어난 예를 이 세상에 보여 주신 것이다.<sup>65)</sup>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주의 손'(행 11:21)으로 묘사되었다. 갈뱅은 「사도행전 주석」(1554)에서 '주의 손'이란 능력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의 '손'으로, 곧 성령의 은밀한 감화로 그들의 가르침이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한다.<sup>66)</sup>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행위들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께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성령의 은혜의 열매이다."<sup>67)</sup>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우리의 선한 의지나 결단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두운 마음과 사악한 심정뿐이다"(갈 5:19-21).<sup>68)</sup>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시냇물같이 부으시고, 그들의 생기를 회복하며 강하게 키우시기 때문에 '기름'과 '기름부음'이라는 이름을 얻으셨다.<sup>69)</sup>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부음'(요일 2:20, 27)뿐이다.<sup>70)</sup> 이와 같이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능력으로도 묘사된다.

65. 「요한복음 주석」, 요 3:7-8.

66. 「사도행전 주석」, 행 11:21.

67. *Inst.*, III, i. 3.

68. *Inst.*, II, xv. 5.

69. *Inst.*, III, i. 3.

70. *Inst.*, II, xv. 5.

## 5.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갈뱅이 성령과 삼위일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요약하면 갈뱅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에게도 자존성(aseitas)을 부여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을 제3의 위격으로 간주함으로써, 성령의 신성을 강조한다.<sup>71)</sup> 또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성령의 신성을 강조한다.

갈뱅에게서 성령은 첫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둘째 삼위일체 속에서 신적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제3의 위격으로서 삼위일체 내에서 다른 위격들과 교제하시며 우리와도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 자신으로서 성령에게 들려지는 고유한 사역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게, 자신의 고유성(proprietas)으로서의 인격적인 능력 또는 힘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성령에 부여된 명칭과 성령의 활동과 결부되어 비인격적인 힘과 능력으로도 불린다. 따라서 성령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거나 신성의 한 부분이거나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 자체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제3위의 신적 인격으로서 성령과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구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3위의 인격으로서 성령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활동하신다."<sup>72)</sup>

갈뱅의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은 그의 스승인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Butzer, 1491-1551)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본질상의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을 '존재와 능력과 행위 속에 존재하는 일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73)</sup> 그러

71.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의 유산」, 284-85.

72. 위의 책, 285.

73. 최윤배, "개혁파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1491-1551)의 삼위일체론적·기독론적 성령론," 「생명의 영성」, 276.

나 “부처는 1530년 판 그의 「복음서 주석」에서 성령의 위격과 사역을 구분”<sup>74)</sup> 함으로써,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말하므로 삼위의 일체성을 주장하고, 삼위의 사역에 있어서는 고유성을 말하므로 삼위를 구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의 삼위일체론적 성령 이해와도 같은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바르트는 그의 신학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성령론에서도 항상 ‘기독교론적’으로 머물렀다.”<sup>75)</sup> 반면에 갈뱅과 그의 스승이며 동료였던 부처에게서 성령론은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된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재창조의 수행자(effector)이다. 갈뱅은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초기에는 젠틸과의 논쟁을 통해 성령의 자존성을 증명함으로써, 성령의 신성과 위격을 확보하고 양태론과 종속론을 동시에 비판한다. 갈뱅은 그의 후기에는 삼위일체론의 문제로 세르베투스와의 논쟁하였다. 갈뱅의 성령론적 삼위일체론 혹은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은 성령의 위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위일체론 자들이나 성령을 단순한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오늘날 일부 신학과 교회와 삼위의 사역을 공통적 측면보다 각각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상당수의 신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명료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갈뱅에게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신성과 위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위일체론을 비롯한 종속론적 반삼위일체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갈뱅에게서 성령은 세계 내에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뜻을 실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74. 위의 책, 280.

75. 최윤배, “헨드리쿠스 베르코프의 성령론의 발전개요,” 「서울長神論壇」, 제8집 (서울: 서울장신대학교 교무처, 2000), 112.

## 참고문헌

- 이수영. “갈뱅의 성령론.” 「신학정론」, 1994, 5. 서울: 합신대출판부, 1994.
- 최윤배.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1491-1551)의 삼위일체론적 성령론.” 「신학지평」, 제13집. 안양대학교신학연구소, 2000. 가을·겨울호.
- \_\_\_\_\_.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1491-1551)의 삼위일체론적·기독교론적 성령론.” 「생명의 영성」, 조직신학논총 11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_\_\_\_\_.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_\_\_\_\_. “헨드리쿠스 베르코프의 성령론의 발전개요.” 「서울長神論壇」, 제8집. 서울: 서울장신대학교교무처, 2000.
- Berkhof, Hendrikus.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황승룡 역. 「성령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이상원 공역. 「별코프 조직신학(상)」.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1559).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 \_\_\_\_\_. *The Calvin Commentary*.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 「존 칼빈 原著 성경 주석」. 서울: 성서원, 2003<sup>2</sup>.
- \_\_\_\_\_.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Ford Lewis Battles. 양낙홍 역.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1536).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김광식 역. 「고대기독교 교리사」. 서울: 도서출판한글, 2004<sup>2</sup>.
- Pelican, Jaroslav. 박종숙 역. 「고대교회 교리사」.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 Wendel, F. *Calvin*.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